

손 영 헌

〈대림 3동 한우리교회 목회자〉

사생활이 통제된 비인간화된 사회

본인은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대학시절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후 기업연구소에서 전자교환기 소프트웨어를 7년 정도 개발했다. 성격적인 관점과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정보화사회의 비전에 대해서 적어 보겠다.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정보화사회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 다니엘은 2500년 전의 유대인으로 바빌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 하나님께서 인류역사의 거대한 맥들을 비전으로 보여 주셨고, 역사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산업사회) 지식이 증가될 것이다(정보화사회)라고 알려 주셨다(구약성경 다니엘 12장4절). 이 구절은 TIME지가 1970년대를 회고하는 글에서 인용한바 있다(1980년 No.1).

1. 정보화사회는 사람들을 더 바쁘고 조급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보통 컴퓨터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쟁사도, 경쟁국도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속도는 더 빨라진다. 또, 통신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세계도처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늘 취해야 하기에 사람들의 영혼은 쉬지 못하고 조급하며 항상 쫓기어 피곤하게 될 것이다.

2. 정보화사회는 인류를 비인간화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되고 컴퓨터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두하게 만든다. 사람이 기계에 빠지므로 기계를 닮게 되

며, 차갑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인간은 무정하게 된다.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 우리들의 의식구조에 상당한 자신감을 주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자신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신감이 교만으로 치다를 때, 사람과 사람사이를 멀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전통적인 것도 배격하며, 우리들을 길러 주신 부모들의 존재자체도 거부하고 거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무디게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는 인간적인 정도 없고, 권위(질서)도 배격하고, 부모도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3. 정보화사회에서 대부분의 인류는 통제받고, 감시당하고, 추적당 할 수 있다.

교환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보통 시험과정에서 Trace(추적)기능을 넣어 시험을 한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특정 가입자의 모든 전화상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은 개개인의 삶들을 어항속의 금붕어처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상업거래가 전면 카드화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각자의 고유한 카드번호를 부여 받고 쇼핑을 하게 한다면, 인간은 완전한 통제속으로 들어가게 된다(요한계시록 13장 16~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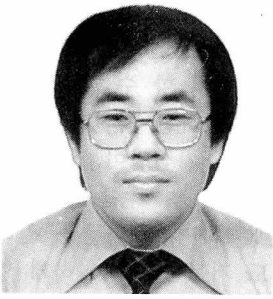
일본사람이 쓴 책에는 정보화사회는 고도의 기

술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므로, 인류의 에너지위기를(석유문제는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딴 곳으로 옮기려는 유대인의 작품이라고도 말한다.

정보화사회를 물질문명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인류문명의 발생원인에 대해 강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던 음식물, 즐거움 그리고 보호의 수단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문명)으로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구약 창세기 4장 16~22절).

정보화사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내적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몸짓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통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사회를 화려한 장미빛사회로 보지만, 목회자로서 본인은 그 속에 많은 함정들과 덫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朱大永

〈産業研究院 責任研究員〉

갈등과 모순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 필요

오늘날 안팎으로 자유화 및 개방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앞날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속에서 정보의 역할은 더 한층 중요해지며, 정보화사회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통신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사회의 실현이 과거 수렵사회, 농경사회 및 산업사회에 이은 인류역사의 최근 단계로서 산업사회의 제반모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보화사회의 지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국제경쟁력의 제고 뿐만 아니라 자원부족의 극복, 교육·의료·환경·행정 등 사회문제의 해결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고용문제나 인간의 소외문제, 컴퓨터 보안문제 등

의 사회적·심리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내일의 약속으로 꾸준히 추진하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모순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혁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의 진전은 한 국가의 산업구조를 변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인간의 의식영역에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정보화는 대략 5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기업경영의 변화인데, 네트워크를 매개체로 하여 과거부터 경영해오던 형태를 일시에 새로운 경영계열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 수주 및 발주거래방법은 VAN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결제방식도 은행의 POS를 통해 이루어지